

					G-A-2
제목	국문	보건소 영양사업 담당 인력의 유형별 보건소 영양사업 활동 및 태도 비교			
	영문	Activities and Attitudes for Nutrition Project by Personnel Type in Public Health Center			
저자 및 소속	국문	권순호, 배상수, 이경희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영문	SH Kwon, SS Bae, KH Lee Hallym University Health Service Research Center			
분야	보건관리 [(지역)보건사업]	발표자	권순호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2년 2월 24일				
<p>1. 목적</p> <p>영양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갖고 있는 보건소는 약 16%정도로 매우 적지만,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영양과 관련된 사업을 독립적인 형태이거나 다른 보건사업과 묶여진 형태이든지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양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에서 전담 인력과 다른 보건사업을 병행하는 인력 간에 보건소 영양사업의 활동 및 이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p> <p>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p> <p>1) 영양사업 인력의 유형간 보건소 영양사업 활동 및 업무내용별 비중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p> <p>2) 영양사업 인력의 유형간 보건소 영양사업에 대한 태도를 비교할 것이다.</p> <p>3) 영양사업 인력의 유형간 영양교육매체 활용도 및 요구도를 비교할 것이다.</p> <p>2. 방법</p> <p>1) 조사도구: 우편조사를 이용한 설문지</p> <p>2) 조사대상: 전국 보건소(244 군체)의 영양사업 주 담당자 (각 보건소당 1인)</p> <p>3) 조사완료: 160명</p> <p>4) 보건소 영양사업 담당인력의 유형 구분</p> <p>그룹 1: 영양사업만 전담함</p> <p>그룹 2: 영양사업이 주 업무이지만 다른 보건사업을 겸함</p> <p>그룹 3: 다른 보건사업이 주 업무이며 영양사업을 보조로 수행함</p> <p>3. 결과</p> <p>영양사업 담당 인력의 유형별 업무활동에 차이가 있다면 1) 영양 관련 업무에 소요하는 시간 및 노력과 2) 영양 관련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의 차이에 기인할 것인데 조사결과 두가지 측면의 차이가 모두 발견되었다.</p> <p>영양담당 인력의 영양사업과 관련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은 개인의 보건소 업무량을 100으로 볼 때 평균 27로 매우 낮았다. 인력의 유형별로는 그룹 1(영양사업 전담) 84, 그룹 2(영양사업 주 업무) 45, 그룹 3(영양사업 보조 업무) 13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 결과로 볼 때 영양사업이 주 업무인 인력이 없는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영양과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양사업의 내용별 활동비중에 대해서는 그룹 1이 일반 건강인에 대한 영양상담 및 교육에 상대적으로 업무할당을 많이</p>					

한데 비해서 그룹 3 은 만성환자 대상의 영양상담 및 교육에 대한 업무를 비교적 많이 하였다.

영양담당 인력의 유형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개인에 대한 영양상담 수행여부''인데 그룹 1 의 90%가 이를 실시하는데 비해서 그룹 3 은 37%만이 이를 수행하였다. 개인에 대한 영양상담은 영양진단 과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전문성과 시간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므로 영양사이면서 영양사업을 전담하는 그룹 1에서의 실시율이 높았을 것이다.

보건영양사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룹 3 이 영양사업의 중점 대상층을 만성병등 건강문제가 있는 계층, 그룹 1 은 건강한 주민이라고 지적하는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점대상 연령층으로는 그룹 1 이 영유아와 중년층을 지적한데 비해서 그룹 3 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노년층에 대해서는 그룹 1 보다 그룹 3 이 영양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건소 영양사업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는 건강문제로는 모두 당뇨가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나 두 번째로는 그룹 1 이 비만을 지적한데 비해서 그룹 3 은 고혈압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 차이가 컸다.

영양교육 매체 활용도 및 요구도에서는 그룹 1 이 보다 다양한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존 매체의 양이 부족하고 매체의 질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비해서, 그룹 3 은 기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영양상담이나 영양교육시 어려운 점으로는 그룹 1 이 장소나 시설 여건 부족, 효과적 도구 부족을 주된 내용으로 꼽은 반면 그룹 3 은 전문적 지식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룹 2 는 전체적으로 그룹 1 과 그룹 3 의 중간적인 수준의 조사결과를 보였다.

4. 고찰

보건소에서 영양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담당 인력의 수행능력과 업무투자 시간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 질,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영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보완되어야 하지만, 인력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이 있고 가능한 한가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른 보건인력이 영양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보수교육 등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보장되거나 또는 외부 영양 전문 인력과의 연계체계를 갖추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만 효과적이고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영양사업이 수행될 것으로 믿는다.